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

A Typology of Urban Married Women's Leisure Activities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교수: 金 外 淑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Air and Correspondence University

Prof. : Oi-Sook Kim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李 基 春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 Kee Choon Rhee

— 목 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가의 개념 2. 여가활동의 유형 III.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문제 및 가설 2. 자료수집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자료분석방법 IV. 분석결과 및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 V. 결 론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typology of urban married women's leisure activities based on participation data.

The survey of this research was conducted by means of interviews with 606 married women in Seoul. The instruments of the survey were questionnaires including a leisure participation scale. Data were analysed by means of the statistics of frequency, percentage, arithmetic mean, standard deviation and factor analysis, using the SPSS-X and SPSS/PC+ programs.

The result was that the leisure activities of urban married women could be grouped into 5 factors : self-developing, family-oriented, religious-social, sociable, and time-spending activities.

For further researches, we suggested several proposals.

* 이 논문은 1990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 론

인간의 삶은 다양한 생활영역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각 영역에서의 만족감 증대 및 영역간의 조화문제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경사회와는 달리 일과 여가가 분화되고 자유시간 및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여가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 있어서는 국민의 높아진 여가욕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충족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¹⁾.

선진국에 있어서도 여가문제는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문적인 면에서 볼 때 서구의 경우 산업사회이후 여가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여가행동에 대한 연구를 축적시켜 오고 있다.

그런데 여가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가활동에 기본이 되는 차원의 존재여부를 밝히고, 기본적인 차원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차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현상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기초 위에서 이론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도 상호관련된 활동들을 유형화하는 과제는 여가활동간의 대체성을 이해함으로써 유사한 여가수요를 갖는 하위집단을 밝히고,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계획 및 관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여가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Chase & Check, 1979; Smith, 1990)²⁾.

서구의 경우 1960년 Kaplan에 의하여 여가활동

유형에 대한 개념적 분류가 최초로 시도되었고, 1962년에는 Proctor에 의하여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다양한 연구방법에 의하여 여가활동유형이 분류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여가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참여의 실태 및 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파악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으로 여가활동참여를 파악하는데 기초가 되는 여가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몇 편에 지나지 않으며(신문영, 1984; 김철호, 1985; 이현주, 1985), 이들 연구의 대상도 도시인 또는 주부에 한정되고 있다.

국제적인 비교연구와 우리나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여가생활만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余暇開發センター, 1980), 또는 다른 생활영역에 비하여 매우 낮은데, 여성은 남성보다 여가만족도가 더욱 낮은 상태이다(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5).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공통적이며, 여성의 여가활동참여에는 특히 많은 장애가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othy, et al, 1981; Ibrahim, et al, 1981; Iso-Ahola & Mannell, 1985; Shaw, 1985a).

여성 중에서도 특히 기혼취업여성은 여가생활을 거의 즐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근로자나 비취업여성의 경우 여가시간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³⁾, 취업여성은 가부장적 전통 속에서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모두 담당하면서 장시간 노동하는 결과 대부분이 휴식과 건강유지·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가시간조차 가질

1) Linder(1970)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오히려 시간기근(time famine) 현상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즉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재산의 획득·유지·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오히려 여가시간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특히 전문·경영계층의 여가시간의 감소는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진산업국가들의 경험적 자료들은 산업화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2) 여가활동의 유형화와 관련한 대체성의 개념 및 그 역할에 관한 고찰은 Hendee와 Burdge(1974), Beaman(1975), Vaske, et al.(1990)의 논문 참조.

3) 우리나라는 산업화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1970년대 이후에도 주당평균 50시간이상의 노동시간을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단축되고 있다. 또한 1989년 3월에는 법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제42조)이 개정되었다.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편 주부로 대표되는 기혼비취업여성의 경우 1983년 이후 가사노동시간보다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으나(한국방송공사, 1982 ; 1984 ; 1986 ; 1988), 다른 직업종사자와 비교할 때 여가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88), 이들은 취업여성과는 또다른 여가생활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교육수준의 점진적 향상에 의하여 이들의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여건과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는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고 자신을 표현하는 등 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참여가 이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여가행동을 파악하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연구자들은 기혼여성의 여가행동을 밝히고자 하며, 일차적으로 본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1. 여가의 개념

여가(leisure)에 대한 고전적 견해는 제외하더라도 현대에도 다양한 여가개념이 존재한다. 여가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대별하면 시간개념, 활동개념, 주관적·심리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Parker, 1976 ; Shaw, 1986)⁴⁾.

여가에 대한 시간개념은 잔여시간개념(residual time concept)이라고도 하는데, 시간개념으로 볼 때 여가란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활동에 종사한 이후에 남는 잔여시간을 의미한다(Kraus, 1971).

여가에 대한 활동개념(activity concept)이란 여가를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휴식이나 오락을 위하여, 또는 지식, 자발적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Dumazedier, 1962). 즉,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 자체를 여가로 본다.

이상과 같이 여가를 시간이나 활동으로 보는 관점 이외에, de Grazia(1962 : 5)가 자유시간과 여가시간을 구별한 이후, 여가를 주관적 상태로 정의하는 원칙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Iso-Ahola, 1979 ; Neulinger, 1981 ; Kelly, 1982 ; Roadburg, 1983 ; Ellis & Witt, 1984 ; Witt & Ellis, 1985 ; Shaw, 1985b, 1986 ; Kleiber, et al, 1986). 어떠한 조건이 분명하게 여가상태를 규정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가와 비여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지각된 자유(고/저), 활동 참여동기(내적/외적), 노동과의 관계(고/저)라는 점에서 검토되고 있다(Iso-Ahola, 1979).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주관적 의미의 여가란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위하여 주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가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여가라는 심리적 상태가 비록 전형적으로는 자유시간이나 비노동시간에 경험되지만, 노동의 과정에서도 여가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축한다.

이상의 세 개념을 각각 자유시간, 레크리에이션, 여가로 규정하고 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개념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Shaw(1986)는 이 개념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측면을 가지면서도 각각 별도의 개념임을 밝혔으며, 오늘날 여가는 연구자 및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연구는 도시기혼여성의 다양한 생활영역 중 노동(취업노동과 가사노동 포함) 및 생리적 활동 영역과 구별되는 생활의 한 영역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가를 시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여가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서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간개념으로서의 여가를 여가시간, 여가시간에 행하는 활동을 여가활동이라고 구별하기로 한다. 또한 본연구에서는 여가에 대한 주관적·심리적 개념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여가활동참여를 측정할 때 활동수행의 동기를 강조하여 응답자가 여가활동을 노동 또는 생리적 활동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여가의 개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Kraus(1971), Neulinger(1981), Shaw(1986), 松原治郎(1977), 김경철(1987), 김의숙 등(1991) 참조.

2. 여가활동의 유형

1) 여가활동의 정의

앞에서 밝힌 여가의 개념 중 활동개념을 그대로 여가활동의 정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으로서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휴식이나 오락을 위하여, 또는 지식, 자발적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Dumazedier, 1962).

2) 여가활동의 분류방법

Kaplan(1960), de Grazia(1962) 등에 의하여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현재 다양한 분류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연숙(Lee, 1989)은 오늘날 조사연구에서 사용되는 여가활동의 분류방법을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빈도, 여가활동을 통하여 충족되는 욕구의 특성, 여가활동의 특성을 판단하는데 내재한 인식의 차원에 근거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Vaske, Donnelly와 Shelby(1990)는 참여, 선호, 지각에 근거하여 여가유형을 나누어 왔다고 요약하고 있다. 또한 Smith(1990)는 여가개념에 관한 사전에서 여가활동을 분류하는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참여분석방법과 태도분석방법을 중요한 방법으로 들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분류방법을 우선 연구방법에 따라 개념적방법과 경험적방법으로 나누고, 경험적방법을 다시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에 따라 참여분석방법과 태도분석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개념적 분류방법

여가활동유형을 최초로 연구한 Kaplan(1960)은 주관적 관점에서 여가활동을 사교활동, 게임과 운동, 예술, 동적활동(movement), 비동적활동(immobility)의 다섯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de Grazia(1962)는 모든 활동을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양극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능동적/수동적, 참여자/관람자, 개인적/사회적, 실내/실외, 가내/가외, 좌식/입식. 이들의 여가활동분류가 비록 객관적 자료를 분석한 기초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초

기의 제안들이 새롭고 객관적인 분류체계를 밝히는 후속적인 양적분석을 자극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경험적 분류체계가 시도되었다.

1975년 Kaplan은 다시 사회심리적 개념에 근거를 둔, 주관적으로 규정된 여가분류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때에는 Dumazedier(1962)가 창안한 다섯가지 차원을 기초로 각 차원을 다시 두 하위차원으로 나누었다. 다섯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신체적 활동, 지적 활동, 예술적 활동, 사회적 활동, 실용적 활동.

여가활동을 개념적으로 분류한 문헌들을 보면, 여가활동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내재한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을 개념적으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예는 능동적 활동과 수동적 활동으로 양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Parker, 1976; Kleiber, et al, 1986).

(2) 경험적 분류방법

여가활동을 분류하는 경험적 방법은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시 참여분석방법과 태도분석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참여분석방법

여가활동의 유형화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근거로 활동을 분류하는 것이다. Proctor(1962)가 여가활동유형을 최초로 경험적으로 연구하면서 참여빈도를 근거로 분류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다(Duncan, 1978; McClaskie, et al, 1986; Lounsbury & Hoopes, 1988; 이현주, 1985).

Proctor는 3,600명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15가지 야외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요인분석하여 네가지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 요인들을 능동적 활동, 수동적 활동, 물관련활동(water activity), 숲 관련활동(backwood activity)으로 명명하였다.

McClaskie, Napier와 Christensen(1986)은 미국 오하이오(Ohio) 주민 2,341명을 대상으로 한 31항목의 야외활동에 대한 참여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다방면 활동, 낚시, 배놀이, 사냥이라는 네가지 활동유형을 밝혔다.

Lounsburyd와 Hoopes(1988)는 113항목의 야외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미국 테네시(Tennessee) 주민 139명으로 대상으로 5년 간격으로 2회 조사한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여가활동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섯가지 유형은 운동·레크리에이션, 휴양활동, 가정적 활동, 조직적 활동, 지적 활동이다.

한편 서울시 비취업주부 356명을 대상으로 25 항목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자료를 요인분석한 이현주(1985)의 연구에서는 교제를 위한 활동,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건강유지·향상을 위한 활동, 종교·사회참여를 위한 활동, 휴식·오락을 위한 활동이 주부의 여가활동유형으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참여분석방법에 의하여 여가활동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제시되는 활동의 종류 및 수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의 빈도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기초로 활동의 유형을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이용한 연구도 있으나(Burton, 1971; Ditton, et al, 1975; Kleiber, et al, 1986; Ellis & Rademacher, 1987),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⁵⁾.

이 참여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Smith, 1990). 가장 핵심적인 비판 중의 하나는 요인분석방법을 통하여 밝혀진 활동 유형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들 유형은 동일한 개인이 참여한 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주 활동간의 대체성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동일한 집단이 다른 두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체성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풍과 야외행사(event) 참여가 Proctor(1962)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점은 야외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소풍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이 두 활동은 서로 대체적이지 않고 동일한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료를 사용하는데 대한 다른 비판은 참여율이 활동에 대한 개인의 선호만을 반영하지 않고 참여기회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특정집단이 어떤 활동에 적게 참여하는 것은 흥미의 결여일 수도 있고 장애로 인한 기회의 결여일 수도 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활동 분류의 기준으로서 태도자료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② 태도분석방법

참여가 흥미뿐만 아니라 기회문제와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태도, 또는 심리적 특성에 근거하여 활동을 분류하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태도자료를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Neulinger와 Breit(1969)로서 이들은 참여에 대한 자료없이 태도점수를 요인분석하여 여가활동유형을 분류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여가활동참여를 연구한 신문영(1984)도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기초로 여가활동유형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시청각레저활동, 대중오락활동, 사교적 활동, 비사교적 활동, 무취미적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서구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요인분석함으로써 여가활동유형이 분류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여가활동유형이 분류되지 않았고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함으로써 분류가 가능했다고 보고하였다.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을 분류하는 방법도 태도분석방법으로서 자주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개인이 왜 여가활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London, et al, 1977; Tinsley & Kass, 1979; Tinsley & Johnson, 1984; Ellis & Rademacher, 1987;

5) Beaman의 주장과 같이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자료에 요인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나(Chase & Check, 1979), 요인분석방법도 분석에 포함된 활동의 수나 활동항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화에 제한점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점은 1980년 가을과 1981년 여름이라는 두 시점에서 58항목의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동유형을 요인분석한 결과 일곱 요인 중 세 요인만 계절에 따라 안정성을 보인 Allen과 그의 동료들(1984)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다.

김철호, 1985).

태도분석방법에 변화를 준 것으로, 활동에 대한 태도나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대신, 활동에 대한 지각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방법도 사용되어 왔다. Ritchie(1975)는 조사대상자가 여가활동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내재한 인식의 차원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 양극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능동적/수동적, 개인적/집단적, 수행이 용이한/수행이 난이한, 몰입적/시간소비적.

태도분석방법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유형을 분류하는데 심리적 자료를 사용하는데 대한 가장 기본적인 비판의 하나는 태도와 실제행동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신뢰성있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Becker, 1976).

1970년대 후반이후 일부 학자들이 이상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참여와 함께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도 또는 흥미와 같은 태도도 조사하여 두가지 자료를 각각 분석하여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Chase와 Cheek(1979), Gudykunst, Morra, Kantor와 Parker(1981), Allen과 Buchanan(1982) 등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태도의 두가지 자료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활동요인이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유형화의 목적에 따라 어느 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본다.

3)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

여가활동참여빈도 또는 여가활동참여에 대한 태도에 근거하여 활동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본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연구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이 다양하게 분류되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자기개발활동” 차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많은 연구들이 “문화적” 또는 “지적”활동이라고 지칭한 활동유형이 존재한다고 보고했으며(Gudykunst, et al, 1981), 우리나라 주부의 여가활동유형을

분석한 이현주(1985)도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활동”유형을 보고하였다. 자기개발에는 정서적·지적 개발 뿐만 아니라 신체적 개발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나 “건강유지·향상을 위한 활동”도 포괄적으로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둘째의 유형은 “종교·사회참여활동”이다. 서구의 연구에서 “조직활동”으로 분류된 유형이 일부 이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현주의 연구(1985)에서도 이 유형이 도시주부의 중요한 여가유형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유형은 “사교활동”이다. 여러 연구에서 사교활동이 중요한 여가활동유형중의 하나로 분석된 바 있으며(Witt, 1971; Duncan, 1978; Ragheb, 1980; Allen & Buchanan, 1982), 서구의 여가활동유형을 분석한 연구에서 “클럽활동” 또는 “조직활동”으로 명명된 활동들도 일부 이 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Gudykunst, et al, 1981). 우리나라에서는 이현주(1985), 신문영(1984)의 연구에서 이 영역이 밝혀졌다.

네째, “소일활동”을 하나의 유형으로 들 수 있다. Ragheb(1980)의 “대중매체활동”, Allen과 Buchanan(1982)의 “대중문화활동”, 이현주(1985)의 “휴식·오락활동” 등을 이 유형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가정지향활동”이다. 이 유형은 기혼여성의 생활에서 가사노동과 여가활동을 구별하기 힘든 점이 있고, 가사노동이면서 동시에 여가활동으로서 성격도 갖는 반여가활동(semi-leisure activity)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에서 중요한 유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Duncan(1978), Lounsbury와 Hoopes(1988)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유형의 하나로 분류되었고, Gudykunst와 그의 동료들(1981)도 비록 기본적인 세가지 여가활동유형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가정지향활동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하나의 유형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상에서 선행연구고찰을 통하여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을 다섯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유형을 이상과 같이 분류한 것이 타당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가활동에 내재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할때 그 유형을 밝히는 일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다음 단계의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기혼 여성의 여가활동은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밝힌 이상의 여가활동유형을 경험적으로 실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은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될 것이다.

2. 자료수집방법

본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과 함께 여가활동참여 및 여가장애도 연구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일부로서, 본연구와 관련된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도구

본연구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여가활동참여도와 활동에 대한 선호도, 여가장애지각정도, 성역할특성, 인구사회적 변수 및 기타 여가생활을 측정하는 8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여가활동참여도척도이다⁶⁾.

본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예비조사 및 사전검사를 근거로 15문항의 여가활동을 제시하고 각 문항별로 5점 또는 6점척도로 참여빈도를 측정하였다. 참여빈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해 온 척도, 즉 '아주 많이 한다'(5점)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1점)까지의 5점척도 대신 평균참여빈도를 고려하

여 활동별로 구체적인 참여빈도를 측정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⁷⁾.

한편 여가활동으로 제시하는 활동항목과 관련해 볼 때, 본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기혼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가사노동과 결합하기 쉬운 반여가활동을 파악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가정관리 및 사회학 전공 교수 3인으로부터 검증받았고, 신뢰도는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α)에 의하여 내적일관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여가활동참여도척도의 크론바하알파계수는 0.69로 측정도구로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표집설계 및 자료수집과정

(1) 표집설계

현대적 의미의 여가란 산업사회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범위로 우선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대표적인 도시로 서울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혼여성 중에는 60대 이상의 노인도 포함되나, 노인의 경우 가정내 역할, 신체적·정서적 조건 등이 20~50대까지의 여성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본연구에서는 20~50대의 기혼여성으로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제한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50대의 기혼여성이 본연구의 조사대상이 된다.

표본은 '전국 도시지역 토지지가조사표'(1989)

7) 응답자 스스로 여가활동참여를 보고하는 데는 상당한 응답오류가 있다는 점이 Chase와 Harada (1984)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다. 본연구에서는 응답오류를 가능한 한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동항목별로 구체적인 참여정도를 제시하였다(예: '텔레비전 보기·라디오 듣기'문항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이상 보거나 듣는다'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까지, '휴식·낮잠'문항의 경우 '거의 매일 한다'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까지, '야외나들이·여행'문항의 경우 '1개월에 한번이상 한다'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까지 5~6선택지를 제시하였다). 활동문항별로 선택지의 수를 달리한 이유는 활동에 따라 참여정도가 크게 달라 참여의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었다. 동일한 척도가 필요한 분석과정에서는 선택지를 재조정하여 모든 문항을 5점척도로 통일하였다.

6) 구체적인 질문지는 김외숙(1991)의 논문 참조.

의 서울지역을 모집단목록으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표집에 의하여 상 20%, 중상 30%, 중하 30%, 하 20%의 비율이 되도록 설계하여 58개 지역으로부터 표집하였다.

(2) 예비조사 및 사전검사

연구내용에 관한 탐색적 목적에서 1990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8일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성용 및 여성용 질문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서울시 성인남녀 67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결혼여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기혼여성으로 제한하였고, 다양한 여가활동목록중 응답분포가 높은 36문항을 채택하였다.

사전검사는 질문지의 질을 높이고 문항을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1990년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예비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회경제적 배경 및 직업을 고려한 서울시 기혼여성 5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였다.

사전검사결과 여가활동참여도를 측정하는 36문항을 통합조정하여 15문항으로 간소화하였다.

(3) 본조사

1990년 7월 9일부터 7월 27일까지 19일간 가정학전공의 대학생, 대학원생, 석사 및 본연구자(총 조사원수 : 31명)가 직접 해당지역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을 면접하였다. 다만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기를 원하는 대상에게는 질문지를 배부한 후 다시 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조사대상 638명 중 612명을 조사하였으며(95.9%), 그 중 기재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6부를 제외하고 606부(95.0%)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X 및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조사에서 표집된 분석대상자는 표 1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보인다. 먼저 연령을 보면 30대집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연령	20~29세	114	18.8
	30~39세	274	45.3
	40~49세	171	28.3
	50~59세	46	7.6
교육정도	국민학교이하	21	3.5
	중학교	73	12.1
	고등학교	264	43.9
	대학교	226	37.5
	대학원이상	18	3.0
직업	주부	396	65.7
	전문·관리·기술직	62	10.3
	사무직	27	4.5
	자영업주	84	13.9
	생산·판매·서비스직	34	5.6
	가계총소득	79만원이하	103
가계총소득	80~129만원	204	33.7
	130~199만원	167	27.6
	200만원이상	130	21.5
	가족형태	확대가족	147
막내자녀연령	핵가족	459	75.7
	자녀없음	49	8.1
	5세이하	181	30.0
	6~11세	171	28.4
	12~17세	110	18.2
종교	18세이상	92	15.3
	기독교	178	29.4
	천주교	131	21.6
	불교	144	23.8
	기타	4	0.7
	없음	149	24.6
주거형태	독립주택	226	38.9
	연립주택	94	16.2
	아파트	235	40.4
	기타	26	4.5
계		606	100.0

단이 45.3%로서 가장 많고 40대집단이 28.3%로 이 두 집단이 전체의 약 3/4(73.6%)을 차지한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약 37세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 집단분포를 보면 고등학교졸업집단이 43.9%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대학졸업집단으로서 37.5%로 이 두 집단이 전체의 81.4%로서 약 4/5를 차지한다. 중학교졸업집단은 12.1%이고, 국민학교졸업이하와 대학원졸업이상 이 각각 10%미만의 비율을 나타낸다.

응답자의 취업여부를 보면 취업집단이 34.3%이고, 비취업집단이 65.7%로서 취업과 비취업의 비율이 약 1:2를 나타낸다. 취업여성을 다시 직업별로 분류하면 자영생산·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자영주가 40.6%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관리·기술직이 30.0%로 많다. 생산·판매·서비스직은 16.4%이며, 사무직이 13.0%로서 가장 적다.

가계의 월평균소득을 네 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79만원이하가 17.1%이고, 80~129만원이 33.7%, 130~199만원이 27.6%, 200만원이상이 21.5%로 나타났다. 응답자가계의 월평균소득은 약 146만원이다.

부모 또는 결혼한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기준으로 가족형태를 확대가족과 핵가족으로 나누어 보면, 확대가족이 24.3%로서 약 1/4이고 핵가족이 75.7%로서 약 3/4이다.

응답자 중 동거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8.4%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자녀의 연령이 만 5세이하인 집단이 전체의 30.0%로 가장 많고, 다음이 6~11세집단으로 28.4%이며, 12~17세집단이 18.2%, 18세이상집단이 15.3%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막내자녀의 평균연령은 9.8세이다.

응답자의 종교를 보면 기독교가 29.4%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불교로서 23.8%이며, 천주교가 21.6%로서 약 3/4의 응답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24.6%로서 전체의 약 1/4이 된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40.0%로서 가장 많고, 독립주택이 아파트보다 조금 적은 38.9%이며, 연립주택이 16.2%이고, 상가 등 기타가 4.5%이다.

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

본절에서는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이 다섯 차원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제시한 이론적 틀을 요인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밝힌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가활동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15문항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다섯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단계별 투입방법(stepwise)으로 고유치가 1을 넘는 점에서 결정하였다. 다음에는 다섯 요인들을 배리맥스(varimax)방법에 의하여 직교회전시켰으며 회전결과에 의한 요인분석결과와 요인별 문항 및 명칭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각 요인별 문항의 요인부하값을 보면, 독서·음악감상이 0.46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모두 0.50이상의 높은 값을 보인다. 이와 같이 높은 요인부하값은 각 문항이 요인으로 분류되는데 있어 높은 변별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독서·음악감상문항은 요인 I로 분류되었으나 요인 II에 대한 요인부하값도 0.45의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다른 조사대상에 대한 추후연구에서 이 활동에 대한 유형화를 다시 분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을 보면 요인 I은 ① 강습 이외의 취미활동·자학자습 ② 음악회·전람회·연극 등 문화활동참여 ③ 취미강습·교양강좌참석 ④ 운동 ⑤ 독서·음악감상으로서 “자기개발활동”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인 II는 ① 가족과 대화·자녀와 놀기 ② 시장이나 백화점 나들이·가족과의 외식 ③ 특별음식이나 간식만들기·집안가꾸기 등 ④ 야외 나들이·여행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지향활동”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III은 그 문항이 ① 종교활동 ② 사회봉사·사회단체참여로서 “종교·사회참여활동”요인으로 칭할 수 있겠고, 요인 IV는 ① 계·친목회·동창회 등 모임참석 ② 친구·친지·이웃 등 만나기로서 “사회활동”요인이라고 하겠다. 요인 V는 ① 텔레비전보기·라디오 듣기 ② 휴식·낮잠 등으로 “소일활

표 2. 여가활동문항과 요인 및 요인부하값

(N=606)

문항	요인명칭 및 요인부하값				
	I 자기개발	II 가정지향	III 종교·사회참여	IV 사교	V 소일
취미활동·자학자습	.73	.17	.04	-.01	.03
문화활동	.64	.24	-.01	.12	-.07
취미강습·교양강좌참석	.63	.05	.33	.26	.02
운동	.53	.07	.02	.13	-.00
독서·음악감상	.46	.45	.06	-.18	.24
가족과 대화·자녀와 놀기	.07	.74	.06	-.09	-.06
시내나들이·가족과의 외식	.20	.59	-.15	.26	-.16
음식만들기·집안가꾸기 등	.07	.58	.30	.18	.23
야외나들이·여행 등	.28	.50	-.11	.12	-.07
종교활동	-.04	.07	.84	-.02	.03
사회봉사·사회단체참여	.39	-.07	.63	.15	-.19
모임참석	.26	-.05	.03	.76	-.03
친구·친지·이웃 등 만나기	.03	.38	.10	.68	.17
텔레비전·라디오	-.16	.03	-.22	.03	.75
휴식·낮잠 등	.13	-.07	.11	.04	.69
고유치	3.38	1.50	1.24	1.05	1.00
전체변량	22.5	10.0	8.3	7.0	6.7

R²=0.545

동”요인으로 칭할 수 있겠다.

요인별로 전체변량 중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자기개발활동요인의 값이 22.5%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정지향활동요인, 종교·사회참여활동요인, 사교활동요인, 소일활동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개발활동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크고, 다음이 가정지향활동요인이며(10.0%), 종교·사회참여활동요인과 사교활동요인, 소일활동요인이 각각 10%미만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 요인에 대한 누적변량의 백분율을 보면 54.5%로서 이는 본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가활동의 차원이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을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나타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의 요인분석결과 나타난 다섯 요인은 이론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섯가지 여가활동유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연구결과를 통하여 여가활동에는 내재적 차원

이 존재한다는 점과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은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혼여성에게는 가정지향활동을 중요한 여가활동유형의 하나로 포함시켜야 하는 타당성이 밝혀진 점은 의의있다고 본다. 가정지향활동이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된 본 연구결과는 Duncan(1978), Lounsbury와 Hoopes(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Gudykunst와 그의 동료들(1981)과 같은 일부학자들이 기혼여성의 여가생활이 가족 또는 가사노동과 관계가 깊다고 개념적으로 논의해 온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겠다.

본연구에서 밝힌 활동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형별 참여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기개발활동과 가정지향활동과의 관계가 가장 강하며 (r=0.45), 가정지향활동과 사교활동간의 관계(r=0.34) 및 자기개발활동과 사교활동간의 관계(r=0.

표 3. 여가활동유형별 참여도의 상관관계

(N=601)

여가 활동 유형	(I)	(II)	(III)	(IV)	(V)
(I) 자기개발	1.00				
(II) 가정지향	.45***	1.00			
(III) 종교·사회참여	.25***	.11**	1.00		
(IV) 사교	.33***	.34***	.16***	1.00	
(V) 소일	.01	.02	-.07*	.09*	1.00

*p<.05 **p<.01 ***p<.001

33)도 강한 편이다. 활동유형별로 볼 때 소일활동이 다른 활동과 상관관계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종교·사회참여활동과의 관계에서는 강도는 약하지만 부적(負的)관계를 나타냄으로써 소일활동은 다른 활동들과는 특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형별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여가활동참여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값을 기준으로 활동유형 및 활동항목별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⁸⁾.

앞의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다섯가지 활동유형별로 참여경향을 보면 소일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으며, 그중에서도 텔레비전시청·라디오 청취를 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을 주로 대중매체와의 접촉으로 보내는 이러한 경향은 남성을 포함한 성인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5),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 선진구나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여가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binson, 1977; 江橋慎四郎, 1978; 余暇開發センター, 1985).

다음으로 많이 하는 활동유형이 가정지향활동으로서 기혼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사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반여가활동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참여도가 가장 낮은 활동유형은 종교·사회참여활동 유형으로서 사회봉사·사회단체참여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특히 낮다. 사회적 활동이 특히 미약한

표 4. 여가활동참여도의 전반적 경향 (N=606)

여가활동유형/항목	평균	표준편차
자기개발활동	2.83	1.06
취미활동·자학학습	2.72	1.87
문화활동	1.82	1.03
취미강습·교양강좌참석	2.18	1.49
운동	2.91	2.06
독서·음악감상	4.52	1.66
가정지향활동	4.01	0.77
가족과의 대화·자녀와 놀기	5.12	1.26
시내나들이·가족과의 외식	3.73	1.09
음식만들기·집 가꾸기 등	4.38	1.30
야외나들이·여행 등	2.81	1.00
종교·사회참여활동	2.64	1.35
종교활동	3.55	2.00
사회봉사·사회단체참여	1.74	1.29
사교활동	3.69	1.00
모임참석	3.17	1.28
친구·친지·이웃 등 만나기	4.21	1.27
소일활동	5.74	1.37
텔레비전·라디오	7.50	1.76
휴식·낮잠	3.99	1.87

것으로 나타난 본연구결과는 기혼여성, 특히 비취업여성의 앞으로의 여가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서구사회의 경우 산업화 과정에서 주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했을 때, 이들의 사회적 봉사활동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의 하나로 기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취에도 큰 공헌을 했던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기혼여성의 종교·사회참여활동의 의미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8) 활동참여도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정도를 참여빈도에 따라 1~8점으로 재조정하였다.

V. 결 론

본연구에서는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참여도를 측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50대의 기혼여성 606명을 58개 지역으로부터 표집하여 면접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X 및 SPSS/PC+ 프로그램의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기혼여성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혼자나 노인 또는 기혼남성과 비교할 때 가정지향활동이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의 하나로서 중요하다는 점과 소일활동이 다른 유형의 활동과는 특히 다른 특성을 가지는 점, 또한 도시기혼여성은 여가에 소일활동 및 가정지향활동을 주로 하며, 이들의 종교·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을 밝힌 것도 의의있다고 하겠다.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에는 다양한 속성을 갖는 여러 유형들이 존재하며, 각 유형간의 관계도 다양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가활동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게 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가활동에 내재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연구에서는 인구집단별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유형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을 일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가활동유형은 시대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자연적인 현상과는 달리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목표에 적합한 단일의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연구목적에 위한 분류유형의 개발은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연구의 축적이 여가행동에 관한 이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가활동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활동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여가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연구결과의 해석에 정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일활동의 경우 다른 유형의 활동과는 크게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에 포함시킬 여가활동의 종류를 연구목적에 맞추는 일이 필요하며, 기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가정지향활동을 여가활동의 중요한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는 일도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연구에서는 독서·음악감상이 자기개발활동으로 분류되었으나, 가정지향활동에도 높은 요인부하값을 나타낸 사실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을 달리하여 이들 유형을 재검토하는 일도 추후연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경철(1987).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서울:보경문화사.
- 2)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1). 가족자원관리.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4) 김외숙·이기춘(199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15집.
- 5) 김철호(1985). 소비자의 레저활동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신문영(1984). 레저선택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사이코그래픽 접근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이현주(1985). 주부의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한국감정평가원(1989). 전국 도시지역 토지시가조사표.
- 9)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8). 전국민 여행동태조사. 한국관광공사.
- 10) 한국방송공사(1982, 1984, 1988). 국민생활시간조사.

- 11) 한국산업경제연구원(1985). 국민여가생활의 실태분석과 대책. 한국관광공사.
- 12) 江橋愼四郎(1978). 余暇活動の實際. 江橋愼四郎編. 余暇教育學. 東京：垣内出版.
- 13) _____(1985). 레저서-白書 '85.
- 14) 松原治郎 編(1977). 余暇社會學. 東京：垣内出版.
- 15) 余暇開發センター(1980). 余暇行動に關するす國際比較研究(余暇開發センター調査研究報告書 54).
- 16) _____(1985). 「レジャー白書 '85」.
- 17) Allen, L.R. & Buchanan, T.(1982). Techniques for comparing leisure classification system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 307-322.
- 18) Allen, L.M., Donnelly, M.A. & Warder, D.(1984). The stability of leisure factor structures across time. *Leisure Science* 6, 226-238.
- 19) Beaman, J.(1975). Comments of the paper 'The substitutability concept' by Hendee and Burdg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7, 146-152.
- 20) Becker, B.(1976). Perceived similarities among recreational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8, 112-122.
- 21) Boothby, J., Tungatt, M.F. & Townsend, A.R.(1981). Ceasing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 Reported reasons and their implic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1-14.
- 22) Burton, T.L.(1971). Identification of recreation types through cluster analysis. *Society and Leisure*. Bulletin for Sociology of Leisure, Education and Culture. (Romesburg, 1979에서 재인용)
- 23) Chase, D.R. & Cheek, Jr., N.H.(1979). "Activity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 : Conclusion from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92-101.
- 24) Chase, D.R. & Harada, M.(1984). Response error in self-reported recreation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 322-329.
- 25) de Grazia.(1962). Of time, work and leisure. New York : Twentieth Century Fund.
- 26) Ditton, R.B., Goodale, T.L. & Johnson, P.K.(1975). A cluster analysis of activity, frequency, and environment variables to identify waterbased recreation typ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7, 282-295.
- 27) Dumazedier, J.(1962). Toward a society of leisure. Translated by S.E. McClure. 1967. New York : Free Press.
- 28) Duncan, D.J.(1978). Leisure types : Factor analyses of leisure profi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0, 113-125.
- 29) Ellis, G.D. & Rademacher, C.(1987). Development of a typology of common adolescent free time activities : A validation and extention of Kleiber, Larson, and Csikszentmihalyi.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9, 284-292.
- 30) Ellis, G. & Witt, P.A.(1984). The measurement of perceived freedom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 110-123.
- 31) Gudykunst, W.B., Morra, J.A., Kantor, W.I. & Parker, H.A.(1981). Dimensions of leisure activities - A factor analytic study in New England.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28-42.
- 32) Hendee, J. & Burdge, R.(1974). The substitutability concept : Implications for recreation research managemen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6, 155-162.
- 33) Ibrahim, H., Mouti, A.A., Altouhami, N., Shamoun, M.A., Ismail, M. & Alhilali, E.(1981). Leisure behavior among contemporary Egyptia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89-104.
- 34) Iso-Ahola, S.(1979). Some social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perceptions of leisure : Preliminary evidence. *Leisure Sciences* 2, 305-314.
- 35) Iso-Ahola, S. & Mannell, R.(1985). Social and psychological constraints on leisure. in Wade, M.G. (ed.) 1985. *Constraints on Leisure*.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 36) Kaplan, M.(1960). Leisure in America : A social inquiry. New York : Double day.
- 37) _____(1975). Leisure : Theory and policy. New York : Wiley.
- 38) Kelly, J.R.(1982). Leisur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 39) Kleiber, D., Larson, R. & Csikszentmihalyi, M.(1986). The experience of leisure in adolesc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 169-176.
- 40) Kraus, R.(1971).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New York : Appleton.
- 41) Lee, Yonsuk.(1989).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

- vities and its effects on human development. *성심여자대학 생활과학연구논문집* 9, 99-119.
- 42) Linder, S.(1970). *The harried leisure clas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43) London, L.C., Crandall, R., & Fitzgibbons, D. (1977).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leisure : Activities, needs, peopl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 252-263.
- 44) Lounsbury, J.W. & Hoopes, L.L.(1988). Five-year stability of leisure activity and motivation fact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118-134.
- 45) McClaskie, S.L., Napier, T.L. & Christensen, J.E. (1986). Factors influencing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 A state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 190-209.
- 46) Neulinger, J. & Breit. M.(1969). Attitude dimensions of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 255-261.
- 47) Neulinger, J.(1981). *The psychology of leisure*. 2nd ed.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 48) Orthner, D.K.(1974).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interac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49) Parker, S.(1976). *The sociology of leisure*. London : George Alten and Unwin.
- 50) Proctor, C.(1962). Appendix A, in *National Recreation Survey, ORRRC Study*, report 19.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51) Ragheb, M.G.(1980). Interrelationships among leisure participation, leisure satisfaction and leisure attitud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138-149.
- 52) Ritchie, J.R.B.(1975). On the derivation of leisure activity types : A perceptual mapping approa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7, 128-140.
- 53) Romesburg, H.C.(1979). Use of cluster analysis in leisure resear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144-153.
- 54) Roadburg, A.(1983). Freedom and enjoyment : Disentangling perceive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5, 15-26.
- 55) Robinson, J.P.(1977). *How Americans use time :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Y. : Praeger Pub.
- 56) Shaw, S.M.(1985a). Gender and leisure :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of leisure tim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 266-282.
- 57) _____(1985b). The meaning of leisure in everyday life. *Leisure Sciences* 7, 1-24.
- 58) _____(1986). Leisure, recreation or free time ? Measuring time usag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8, 177-189.
- 59) Smith, S.L.J.(1990). *Dictionary of concepts in recreation and leisure studies*. New York : Greenwood Press.
- 60) Snepenger, D.J. & Cheek, Jr., N.H.(1982). Distribution analysis for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 168-180.
- 61) Tinsley, H.E.A. & Kass, R.A.(1979). The latent structure of the need satisfying properties of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278-291.
- 62) Tinsley, H.E.A. & Johnson, T.A.(1984). A preliminary taxonomy of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 234-244.
- 63) Vaske, J.J., Donnelly, M.P. & Shelby, B.(1990). Comparing two approaches for identifying recreation activity substitutes. *Leisure Sciences* 12, 289-302.
- 64) Witt, P.A.(1971). Factor structure of leisure behavior for high school age youth in three commun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 216-220.
- 65) Witt, P.A. & Ellis, G.D.(1985). Development of a short form to assess perceived freedom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 225-233.
- 66) Yu, J.M.(1980). The empirical development of typology for describing leisure behavior on the basis of participation patter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309-320.